

불가해한 세상을 향해 외치는 작은 목소리들

정은숙 소설집 『내일 말할 진실』



『내일 말할 진실』에는 각자의 진실을 품고 세상에 맞서는 10대들이 등장한다. 존경하는 선생님을 둘러싼 추문과 맞닥뜨린 세아, 엄마와 유럽 여행을 하던 중 곤경에 빠진 양호, 몰래 나선 밤거리에서 믿고 싶지 않은 장면을 목격한 묘성…。 진실의 편에 서고 싶은 10대들은 손에 쥐고 있는 사실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될까?

소설의 소재는 아주 뜨겁다. 스쿨 미투, 양심적 병역 거부, 청년 실업, 교내 식중독 사건, 사회 지도층의 공연 음란 행위 등, 문득 실제의 사건이 떠오르기도 한다. 2020년대 한국사회의 주요 이슈들이 담겨 있다 보아도 무방하다. 마지막 장을 덮으며 “세상에 필요한 소설이다.”라는 생각을 했다.

사회 현안을 다뤘다는 점이 ‘세상에 필요한 소설’이라는 수식을 붙일 만한 근거가 될 순 없지만, 소설에는 세상을 바꿔놓지는 못하더라도 소박한 시도를 하는 사람들, 초라할지라도 진실의 편에 서기를 택한 사람들이 등장한다. 이는 우리 청소년들이 꼭 목격해야 할 장면이다.

국어 교사로 수업을 하며 우리가 수업 시간에 나누는 대화가 아이들에게, 그리고 이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를 자주 생각해 본다. 한없이 선량한 이들에게 닥치는 불행은 여전하고 세상은 바뀌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대체로 ‘제3자’의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제3자가 가져야 할 자세, 윤리를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이 엉망진창인 세계를 아주 좁은 보폭으로나마 나아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손쉽게 누군가를 재단하고 평가하는 위치에 서서 흥밋거리로 사안을 소비하지 않도록 할 것. 맥락을 모두 제외한 채 납작한 진영싸움을 하느라 이것이 인간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놓치고 지나가지 않도록 할 것. 진실을 직시하는 노력은 대체로 살을 도려내는 듯 고통스럽지만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걸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만들 것.

세상이 당장 바뀌지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소설 속에 등장하는 ‘작은 개인들’ 이해하기

수업 시간에 지식 정보 도서를 읽는다면, 주요 정보를 학생이 습득하게 하는 일에 무게를 두어야 하지만 소설 읽기의 목표는 이와 전혀 다르다. 소설은 ‘작은 개인’의 이야기를 다룬다. 단순히 가해자, 피해자로 일반화된 집단이 아닌 사건을 둘러싼 인물 개개인의 생각과 감정을 보여 준다. 이는 독자가 사회 문제를 바라볼 때 더 이상 팔짱을 낀 채 ‘안쓰럽다’, ‘불쌍하다’, ‘그래도 저건 아니지 않나’라는 식의 알뜰한 평을 내놓지 못하게 한다. 나와 다르지 않은 ‘인간’의 일임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소설을 제대로 읽은 독자는 인간을 대할 때 더 이상 ‘손바닥 보듯 쉬운 일’이라고 말할 수 없다. 거칠게 말하면, 작가가 소설을 쓰는 이유는 우리가 실은 타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걸 인정하게 만들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이 소설은 사회 현안을 소재로 가져와 쓰인 만큼, 학생 개개인이 평소 갖고 있던 입장을 정리해 보는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기 쉽다. 하지만 그것을 활동 전체의 목표로 삼는다면 굳이 ‘소설’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사라져 버린다. 등장인물 ‘개인’에 대해 더 면밀히 분석하고 생각의 과정을 따라잡는 활동이 섬세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지식 정보 도서를 읽고 진행하는 수업과 차별성을 떨 수 있다.

2. 단편소설의 묘미 발견하기

『내일 말할 진실』은 7편의 단편소설을 모은 소설집이다. 단편소설을 읽는 묘미 중 하나는 작가가 던지는 질문을 발견하는 것이다.

『내일 말할 진실』의 수업을 준비/진행할 때에 교사가 무게를 두어야 하는 지점은 학생 스스로 작가가 던진 질문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답을 고민하게 하는 일이다. 생각을 만들고 정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싶다면, 수업의 마무리를 모두 토의와 서평 쓰기로 맺는 것을 권한다.

작품의 결을 세세히 뜯어 읽으며 작가가 심어 둔 장치를 발견하는 일 또한 단편소설을 읽는 즐거움이다. 학생을 꾸준한 소설의 독자로 성장시키기 위해 개별 작품의 이해를 넘어 그 장르의 매력을 맛보여 주는 일까지로 수업의 범위를 넓힌다. 학생들이 직접 질문을 만들고 각자의 답을 만들어 나가는 토의 활동이 이뤄지기 직전에, 1~2차시를 배정하여 교사가 소설을 예리하게 읽는 데 도움이 되는 질문을 제시하고 학생이 이에 대해 토의를 하는 식으로 연습을 해 보면 학생 주도의 토의 활동에서 더욱 밀도 있는 대화가 오간다.

<차시별 활동 계획>

차시	활동		질문 개수
1	읽기 전 활동	[활동 1] 내용 예측하기	활동지
2	읽기 중 활동	[활동 1] 작품 읽기	개별 목록
3		[활동 2] 작품을 읽으며 독서 일지 쓰기	활동지
4	읽기 후 활동	내용 이해	활동지
		[활동 1] 「내일 말할 진실」 질문 게임 (1)	
		[활동 2] 「내일 말할 진실」 질문 게임 (2)	활동지
5		적용	
6		[활동 3] 모둠 토의 (1)	활동지
		[활동 4] 모둠 토의 (2)	
7		창의 융합	개별 활동지
8		[활동 5] 서평 쓰기	

| 1차시 |

활동 1 내용 예측하기

- 책을 읽기 전에 제목에 대한 예측으로 책에 대한 흥미를 높인다.
- 제목을 토대로 작품 속 '진실'에 대한 전후 상황을 예측해 본다.

1. 표지를 보고 책의 내용을 예측해 보자.



- 왜 '오늘 말할 진실'이 아니라 '내일 말할 진실'인지 예측해 봅시다.
- 알고 있는 진실을 바로 말하지 못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지 예측하여 말해 봅시다.

활동 1 작품 읽기

- 학생 스스로 작품을 묵독한다.

반드시 수업 시간에 '함께' 책을 읽어야 한다. 1~2차시를 추가해 전체를 묵독하게 해도 좋다. 책을 충실히 읽은 독자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 둔 뒤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야 학생들의 말과 글에 의미가 실린다.

활동 2 작품을 읽으며 독서 일지 쓰기

- 글을 읽을 때 틈틈이 독서 일지를 쓰게 해 의미를 찾는 행위에 집중한다.

1. '읽기'에 초점을 두고 싶을 때

'인상 깊은 장면 떠올리기, 개인의 경험/사회 현상과 연결지어 이해하기, 토의 거리 만들기'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독서 일지는 학생들이 느끼는 난이도가 낮다.

독서일지를 작품 수만큼 인쇄해 나누어 준 뒤(A4용지 1면에 양식이 2개 실리는 정도가 적당하다.) 자율적으로 쓰게 한다. 내용을 수행 평가 점수에 반영할 생각이라면 수업이 끝날 때마다 일지를 걷어 교사가 보관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내어 준다.

작품 제목	
인상 깊은 내용 옮겨 쓰기	인상 깊은 장면: 이유 :
내 경험과 연관 지을 수 있었던 장면은? (경험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세요.)	어떤 장면이었나요?: 연관지을 수 있는 경험:

소설의 내용을 책이나 방송, 인터넷 등으로 사회 문제와 연관 짓기	어떤 사회 현상이 떠오르나요?:
친구와 대화하며 해결하고 싶은 질문	

2. '주제'에 초점을 두고 싶을 때

특정 주제가 담긴 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제에 집중하여 독서 일지를 작성한다.

『내일 말할 진실』은 특정 사회 문제를 소재로 쓰인 작품들이 모인 책이라는 점이 특징인 책이다.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에 대한 생각을 펼쳐 나가게 하고 싶다는 '작가의 의도'를 수업에 반영하려면 2의 양식을 활용하여 주제에 초점을 둔 이해 활동을 하는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책의 특성에 따라 활동에서 초점을 두는 비를 달리하는 것은 학생들이 독서 전-중-후 활동의 의미를 몸으로 확인하게 한다.

단, 작성에 긴 시간이 걸리므로, 마음에 드는 2~3개 작품만을 택해 일지를 쓰게 하거나 책 읽기 시간을 3~4차시로 늘려 진행하는 것을 권한다.

독서 일지

1. 작품 이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단어 세 가지를 찾아 써 보자.

	핵심어	그렇게 생각한 이유
1		
2		
3		

2. 핵심어를 바탕으로, 소설 속 사건과 유사한 현실 사회의 현상과 작품의 주제를 추측해 보자.

- 소설의 내용과 닮은 현실 사회의 상황 :
- 작가는 독자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 :

3. 작가가 담아내려 한 사회 문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을 찾아 써 보자.

사회 문제가 드러나는 장면	
이 장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유	

4. 작가가 담아내려 한 사회 문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을 찾아 써 보자.

작가의 대안이 나타나는 장면	
그에 대한 나의 생각 (어떠한 점에서 의미 혹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활동 1 표제작 「내일 말할 진실」 질문 게임 (1)

- 모둠 토의에서 이뤄질 밀도 있는 대화를 위해 ‘좋은 질문’을 만드는 연습을 한다.
- 한 편의 단편소설을 제대로 읽는 경험을 한다.

좋은 질문은 작품의 내용이나 작가의 의도, 특징적인 표현 혹은 소재가 된 사회 현상에 대해 독자 스스로 ‘왜?’라는 의문을 품을 때 만들어진다. 글 이해에 도움이 되는 질문을 만드는 법을 학생 스스로 깨닫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질문 게임’이다.

<질문 게임 (1) 방법>

- 1 4명의 학생이 한 모둠이 된다.
- 2 각 2개씩, 한 모둠 당 8개의 질문을 만든다.
- 3 모둠원이 책을 참고하면서 질문에 대한 모범 답안을 만든다. 이때 교사는 작품을 근거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답으로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본문에서 곧바로 답을 찾을 수 있는 단순한 답안을 작성하지 않도록 유도한다.
- 4 각 질문의 중요도에 따라 별점을 매긴다.

활동 2 「내일 말할 진실」 질문 게임 (2)

- 좋은 질문을 학생 전체에게 공유할 수 있다.
- 게임의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책을 이해하게 한다.

<질문 게임 (2) 방법>

- 1 모둠원 4명 중 한 사람을 출제자로 정한다.
- 2 각 모둠의 출제자가 일어나 다음 모둠의 출제자 자리로 이동한다.
- 3 출제자가 질문을 하면 다른 학생들이 소설의 내용을 확인하며 답을 말한다. 맞출 경우 그 문제에 부여된 별의 개수만큼 점수를 받는다.
- 4 1~3의 방식을 두 번 진행하여 우승 모둠을 정한다.
- 5 교사는 학생들이 만든 질문 중 소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질문, 많은 팀에서 언급된 질문을 전체 학생들 앞에서 소개하고 내용을 설명한다. 좋은 질문을 만든 학생을 호명하여 크게 칭찬해 준다.

질문 게임

- 중요도 별로 ★ 별 1개 질문 2개 / ★★ 별 2개 질문 3개 / ★★★ 별 3개 질문 3개를 만들어 보세요.

질문 1

별점 :

답 :

질문 2

별점 :

답 :

질문 3

별점 :

답 :

질문 4

별점 :

답 :

질문 5

별점 :

답 :

질문 6

별점 :

답 :

질문 7

별점 :

답 :

질문 8

별점 :

답 :

활동 3 모둠 토의 (1)

〈모둠 토의 (1) 방법〉

- 1 모둠 구성(10분): 표제작(『내일 말할 진실』)을 제외한 작품 중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깊이 이해하고 싶은 소설을 한 가지씩 정하게 한 뒤, 그것을 중심으로 새로운 팀을 만든다. 한 모둠을 이루는 학생의 숫자는 4~5명이 적절하다.
- 2 비주얼 싱킹(20분): 소설의 주요 내용을 주어진 양식의 원 안팎에 글과 그림으로 표현한다. 소설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학생은 교사가 직접 찾아가 개별적인 도움을 준다.
- 3 개인 질문 만들기(10분): 친구들과 함께 해결하고 싶은 질문을 개인적으로 2개씩 만든다. 교사는 포스트잇을 나누어 준 뒤, 메모지 한 장당 질문을 한 개씩 쓰도록 안내한다. 학생이 질문을 만드는 동안 교사는 '질문 게임'에서 만든 좋은 질문의 특성을 언급하며 독자에게 생각을 일으키는 내용인지를 학생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토의 주제가 만들어지도록 돕는다.
- 4 모둠 질문 만들기(5분): 각자의 질문이 쓰인 포스트잇을 모둠 책상 가운데에 모으도록 한 뒤, 모둠원이 협의하여 이 수업 시간에 해결할 대표 질문 2개를 선정한다.

- 1 가운데 원에는 주제(혹은 주제어)를 적습니다.
- 2 주제를 적은 원 바깥의 큰 원에는 주제와 관련된 정보를 적습니다.(간단히!)
- 3 주제와 관련된 정보의 구체적인 설명은 원 밖으로 화살표를 그리고 적습니다.
- 4 글의 안과 밖에 적은 정보와 설명을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활동 4 모둠 토의 (2)

〈모둠 토의 (2) 방법〉

- ① 역할 정하기: 사회자, 기록자, 발표자를 정한 뒤 토의를 시작할 준비를 한다.
- ② 모둠 토의(20분): 교사는 모둠 사이를 거닐며 오가는 이야기를 듣고 내용이 깊어질 수 있도록 작품의 섬세한 지점을 짚거나 꼬리 질문을 던지는 식의 도움을 준다.
- ③ 발표 자료 작성(10분): 두 가지 질문 중 더 깊은 논의가 오간 것 하나를 정하게 한 뒤 그 내용으로 발표 자료를 만든다. 자료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을 토의에서 주고받은 이야기의 주요 내용을 정리/확인할 수 있다.
- ④ 발표(15분): 발표 자료를 토대로 발표한다.

활동 4 서평 쓰기

- 책의 내용을 실마리 삼아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확인한다.
- 모든 활동을 마무리한다.
- 수행평가 점수에 포함되는 활동인 경우, 수업시간이 끝나면 활동지를 걷고 다음 시간에 다시 나누어 준다.

서평 쓰기, 힘들지만 보람 있는 활동!

▶ 글감 마련을 위한 질문

주목! '글감 마련하기' 평가 기준:

- 1 문장은 짧게, 칸은 꽉꽉 채웁니다.
- 2 '~것 같다'를 최대한 줄입니다. 딱 잘라 말하고 이유를 설명하세요.
- 3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친절하게 씁니다.

▶ 서평 쓰기 질문거리 10가지

- 1 **다시 보기:** 반짝반짝 빛나는 책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면서 마음에 드는 부분,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 감명받은 부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 부분, 재미있는 부분, 재미없는 부분 등등 어떤 식으로든 기억에 남는 부분을 적습니다. 어떤 부분이든 괜찮지만, 그 부분이 기억에 남은 이유를 최대한 자세히 써 봅니다.
- 2 **큰 그림:** 이 책은 말하려는 내용을 어떤 순서와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있나요? 책의 구성을 파악해 봅니다. 목차를 참고하면서 책의 설계도를 그린다는 기분으로, 소개하듯이 쓰면 됩니다.
- 3 **첫 만남:** 책의 이름, 저자, 출판사를 적고 책을 읽기 전에 했던 기대(예상)를 적습니다. 이 책을 처음 봤을 때의 느낌을 솔직하게 적어 보아도 좋습니다.
- 4 **누구나, 너?:** 저자 소개나 머리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책이나 저자에 대해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책이나 저자에 대해 미리 알고 있던 사실이 있었다면 함께 씁니다.
- 5 **나도!:** 책 속 내용과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생생하게 써 봅니다. 친구의 경험을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 6 **링크 링크:** 책의 내용과 관련된 세상일을 찾아봅니다. 다른 책, TV 프로그램, 뉴스, 신문 기사, 영화, 음악, 인터넷 정보 등을 찾아보고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 주세요.
- 7 **비포/애프터:** 책을 다 읽은 후 새롭게 깨달은 점이 있으면 적어 봅니다. 책을 읽기 전과 책을 읽은 후, 내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세히 풀어 씁니다. 교훈적이고 뻔한 이야기보다 생생한 나만의 이야기가 좋습니다.
- 8 **도대체 왜?:** 글쓴이가 이 책을 왜 썼을까 생각해 적어 봅니다. 그리고 저자의 생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씁니다. 글쓴이의 생각에 동의해도 좋고, 비판해도 좋습니다.
- 9 **제 점수는요:** 이 책이 지닌 가치를 평가해 봅니다. 이 책을 살지 말지 고민하는 친구에게 도움이 되는 말들을 적습니다. 근거를 책 내용 안에서 찾아 설득력을 높여 봅니다.
- 10 **아무 말:** 책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읽으며 했던 생각을 자유롭게 적습니다. 단, 남들이 알아 들을 수 있도록 친절하게요.

- 2~3차시를 추가하여 완성 글을 쓰는 일을 시도할 수 있다.
- 10개의 질문거리 중 마음에 드는 것 6개를 택하고 그것을 적절한 순서로 배치하고 살을 보태어 한 편의 글을 완성한다. 각 꼭지의 길이를 A4용지 1/3~1/2면으로 제시하면 학생들이 큰 품을 들이지 않고도 2~3매 내외의 글을 혼자 힘으로 써 보는 경험을 할 수 있다.

글감 마련하기

글감 1 : _____

글감 2 : _____

글감 3 : _____

글감 4 : _____

글감 5 : _____

글감을 바탕으로, 글의 설계도(개요)를 만들어 봅시다.

한 편의 완성글을 써 봅시다. 각 글감에 따라 소재목을 붙여 보세요.